

소통 넓히고 광폭 행보... '연착륙' 성공

■광주시

강운태 광주시장의 취임 한 달을 관통하는 화두는 '참여와 소통'이다.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시정 목표로 제시한 강 시장은 시민과 사회단체, 정치권과 직접 몸으로 부대끼는 광폭행보,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결정 등을 통해 민선 5대 시장으로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상무소각장 이전 등 민선 4기부터 이어져 온 지역 최대 현안사업들의 추진방향에 대해 '쾌도난마'식의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부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달 동안 광주시민들에게 가장 참신하게 다가온 변화 가운데 하나는 시장과 하심탄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강 시장은 취임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시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민원실에 접수된 순서대로 하루 3~4명의 민원인을 만나 진정내용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쟁점을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중재인 또는 해결책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화의 시간은 '시민과의 소통'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공무원을 동원한 전시행정'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무지구를 비롯한 광주 전지역에서 '음란성 광고물' 단속을 벌인 것 역시 시민을 위한 체감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 시장은 또 중요 시책을 논의하고 수립

현안사업 추진방향 '쾌도난마'식 결정 논란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과 만남의 날' 행사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민원인들과 하심탄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 시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금요일마다 시민들과 만나 시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는 과정에서 원탁회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일부 전문가, 시의원들만 참여함으로써 시장의 실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은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졌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원탁회의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이와는 달리 공직자들에게는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인드로 무장할 것을 주문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각종 회견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 조직을 재편하고, 공기업을 출원·출자기관을 폐·통합하

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공무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강 시장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 상무소각장 이전, 광주공항 준차 등 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 시장은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한 견해나 새로운 정책방향을 지나치게 '거침없이' 밝힘으로써 일부에서는 '기준에 추진되어 온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중단, 또는 수정하려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시책점검 주력... '정중동' 속 내실 다지기

■전남도

영산강살리기사업 성사 여부 최대 과제로

박준영 전남지사는 취임 한달동안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보였다. 광주시가 8년만에 시장이 바뀌면서 많은 뉴스를 쏟아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뉴스의 조명을 덜 받았다.

3선 연임에 성공한 탓에 신규사업 발표보다는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시책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정중동속에서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박지사는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5기에는 3대 시책인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3농정책' ▲미래 첨단산업 유치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등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인구 늘리기다. 취임 이후에도 5GW급 대규모 풍력산업 프로젝트에 1조6000억원의 추가투자를 이끌어 냈고 해양관광·식품 분야 5개 기업과 83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남해안관광레저 도시개발계획(프로젝트)에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엠베서더 그룹이 3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박지사는 또 해양관광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추진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대출규제 강화로 진전이 없자 관광 인프라의 경우 대출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지방선거 이후 불어닥친 4대강 논란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가 도청 간부 및 22개 지역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투자유치와 200만 인구 회복을 위해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를 위해 도내 22개 시·군 단체장과 지난 9일 전남도청에서 민선 5기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일자리창출과 무안공항 활성화 등 전남의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불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F1이 올해를 시작으로 7년동안 열리는데 F1의 성공이 향후 2012년 여수엑스포와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의 3대 국제행사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선거 이후 불어닥친 4대강 논란

에 휩싸이면서 민선 5기 도정이 출범부터 발목이 잡힌 측면이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다른 강은 모르겠지만 영산강만은 해야한다"는 박지사의 '소신'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당론을 거부한 단체장으로 비쳐지면서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박지사는 "영산강을 방치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며 여전히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환경단체 등 반대론자들을 끌어 안으면서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성사시키는 문제가 민선 5기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구태 여전... 시·도민 '개혁 열망' 기대 못 미쳐

■광주·전남 의회

전문성 연구모임 활성화 등 변화 움직임도

민선 5기 광주·전남 지방의회는 변화를 선택한 시·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26명 중 21명(80.8%), 전남도의회는 62명 중 46명(74.2%)이 초선 의원들로 대폭 물갈이가 이뤄져 '풀뿌리 지방자치'의 일대 변화와 개혁이 예고되면서 시·도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임기 초반부터 긍정적 변화 보다는 부정적 모습이 적지 않다. 광주시의회의 출범 한 지 한 달도 안돼 집행부의 불협 화음을 내는가 하면, 도의회는 민주당과 교육위원으로 갈려 '집안 싸움'을 벌이면서 임기 초반부터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윤봉근 의장이 강운태 광주시장의 '일방통행식 정책발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촉발된 갈등 양상이 아직까지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도시철도 2호선·문화전당 조기 완공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해도 부족한 시기에 기싸움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도의회도 비슷하다. 구태와 폐습이 되풀이됐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

히하고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 정립에 힘쓰겠다'는 약속은 내뱉겨졌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면서 교육의원들은 민생 현장을 외면했고 학생·학부모들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졸속에산신사 및 일부 의원들의 인사 청탁성 질의 등 '할량 미달'식 행태도 여전했다.

하지만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키는 등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도 의회 내부에서 포착돼 주민들은 여전히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잇단 파격 행보... 전남 교육현장 신선한 충격

■광주·전남 교육청

광주 장휘국 당선자, 소통으로 교육문제 접근

국립대 총장에서 전남교육의 수장으로 변신한 장만재 전남교육감의 취임 후 한 달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존 교육계의 낡은 관행을 넘어 새로운 교육을 열기 위한 모험의 시간이었다.

장 교육감은 당선인 시절 일부 교직원의 당선 축하금 돈 봉투 전달 시도를 폭로, 취임 전부터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그는 취임식장에서 단상 아래에 교육감 자리를 빼치, 참석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구내식당에서 직접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았다.

교직원에게 전자결제를 요구하거나 종교 자가용을 몰고 직접 출퇴근을 하기도 했다.

22개 시·군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일괄 보직 사퇴는 지역 교육계에 충격을 가져왔다.

전교조 등 진보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만큼 '진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몇몇 진보 교육감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현장을 진보와 보수의 틀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 교육감은 "(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나 스스로도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이 가장 중요하며 학생을 위한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다"고 강조

했다. 장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특단의 방법을 찾아내고 또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평준화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수월성 교육과 실력 향상, 대학 진학을 제고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것도 큰 고민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취임준비위원회를 운영하며,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간담회를 갖는 등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취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大山프리모닝네기발**
기능장 1호

가발
최슬림!!
가발 50만원

HAVER
HAIR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어머님들께 권할 작정 시술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동천동 111-1번지
문의: 062-576-8600
팩스: 062-576-8600
편지: 이 수 세 011-607-3330

전북장터

전북장터

062)576-8600